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현황과 시사점⁹⁾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김동수

대내적으로 공급과잉 해소 및 산업구조고도화 그리고 지역격차 완화 등을 이유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일대일로를 시작
 대외적으로 기존의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전환을 위한 우호국가 확대 차원의 일대일로 중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견제와 연선국가들의 국내사정으로 인한 일대일로 구상 추진의 속도 조절 불가피

1. 일대일로 정책의 배경

- (대내적 배경)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할 수단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 격차 완화라는 정책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등장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렸고 이로 인한 공급과잉의 문제가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 창출이 필요했던 상황
 - 신규 수요 창출로 공급과잉 문제는 물론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진
 - 인프라 개발로 지역 간 연결을 통하여 서부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격차 완화
 - 궁극적으로는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수단
- (대외적 배경) 경제규모 면에서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주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9) 2018년 10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지역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재정리.

시작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새로운 전환 모색

- 중국 주변의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차관제공 및 중국국유기업(State Owned Corporations, SOCs)들의 인프라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영향력 확대
- 남중국해, 인도와의 접경 등 지역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기 마련
- 아프리카에서의 인프라개발협력투자로 중국우호국가 확대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통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은 물론 국제금융체계상의 주도권 마련 계기
- 최근 이러한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일대일로 추진이 가속화

2. 일대일로 정책의 현황과 성과

-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270여개의 주요 성과를 발표
 - 주요 연선국가들과의 인프라개발사업 관련 상호 MOU체결
- 2018년 10월 25일 상무부는 2018년 3분기까지의 일대일로 성과를 신문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¹⁰⁾
 - 201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선국가 간 교역액 규모는 6조 8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고, 수출은 3조 3,800억 위안(전년동기 대비 7.7% 증가), 수입은 2조 7,000억 위안(전년동기 대비 20.9% 증가)을 기록
 - 3분기까지의 2018년 투자협력을 살펴보면, 중국기업의 연선국가의 비금융 직접투자액은 107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2.3% 증가
 - 연선국가에서 중국기업이 설립한 경제무역단지는 82개이며, 해당 국가에서 약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일대일로 회량은 모두 6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5개의 내륙회량과 1개의 해상회량 중 중과회

10) <http://www.mofcom.gov.cn/xwfbh/20181025.shtml>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회랑



자료 : 김동수, “일대일로 정책과 시사점”(한국국제지역학회, 2018년 10월 23일, 쿠알라룸푸르).

량이 가장 진척도가 높은 상태이나 일부 지역의 사업에 차질

- 중파회랑은 일대일로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장 웨이우얼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의 약 3,000km 구간에 고속철도, 고속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관 등의 사업을 중국자본과 중국기업들이 추진 중이며 늘어난 채무로 인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과다르항의 43년간의 운영권을 이양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회랑은 다카에서 쿤밍, 콜카타, 미얀마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관련 국가들 간의 지역안보 및 기타 이해관계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더딘 편이며 스리랑카의 경우도 채무증가로 인한 함반토타항의 지분(80%)과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에 이양하기로 한 상태이고 네팔의 다카항,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연결함으로써 인도의 배제 및 고립화 초래
- 중몽러회랑은 철도 및 가스수송관 등의 인프라사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연선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비교적 사업여건이 좋고 사업의 진척 속도가 빠른 반면, 산업의 파급효과 및 시장성은 작은 편
- 신유라시아회랑은 동유럽국가 및 서아시아국가의 교통인프라 연계와 국경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교적 사업여건이 좋은 편인 반면 산업의 파급효과, 시장성 및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소 작은 편

표 1 중국의 일대일로 회랑

회랑	주요 노선	주요 사업 현황	평가				
			속도	여건	시장	산업	중요
중국-파키스탄	신장웨이우얼-카스-이슬라마바드-카라치-과다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웨이우얼~파키스탄 과다르 항 약 3,000km 구간의 철도, 고속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 (일대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 약 460억 달러 규모) • 과다르항 경제특구의 43년간 운영 관련 각서 체결 	●	●	○	○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방글라데시다카-쿤밍-인도콜카타-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쿤밍~미얀마차오쥬수송관 건설 착수(2015) • 방글라데시 파도마 교량건설 시공 중(2014~18, 중국기업) • 스리랑카 코톤항과 함반토타항 공사 중(중국기업) 	○	◎	◎	◎	○
중국-몽골-러시아	러시아치타-창춘-선양-징진지-몽골울란바토르-러시아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중국 천연가스 30년간 수송계약, 공급계약 체결 • 러시아 모스크바-키잔 고속철도, 향후 베이징으로 연결 • 몽골, 러시아와 국경 협력 체결 	●	●	○	○	◎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경제	정저우-시안-안저우-우루무치-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바르샤바-독일베를린-네덜란드로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유럽 간 내륙철도 (9개국, 14개 도시, 39개선) •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지역 (호르고스) 국제물류 사업 추진 	◎	◎	○	○	○
중국-중앙아시아-서부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알라산커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수송관 건설 합의 • 카자흐스탄 경전철 건설 (중국 기업) • 우즈베키스탄의 철도건설 중 	◎	◎	◎	◎	◎
중국-중남반도	난닝-베트남하노이-태국방콕-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디브 공항 교량건설 중 •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 • 말레이시아동부해안철도ECRL, 천연가스관 	○	○	●	●	●

자료 : 일대일로영도소조(2017), "Building the Belt and Road : Concept, Practice and China's Contribution".
 조영삼 외(2016),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연구보고서 2016-783, 산업연구원.
 주 : ○(낮음), ◎(중간), ●(높음).

- 중국-중아시아-서아시아회랑은 중국의 신장 아라산커우에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륙물류의 수요 증가로 시장성이 높은 편

- 중남반도회랑은 남중국해 연선국가들이 포함된 가장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내륙철도, 경제협력산업단지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가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3. 일대일로 정책의 현안과 미래

- 중국 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우 비교적 교통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양호하게 진행 중인 반면, 중국 인접 연선국가들이 포함된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타당성 및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 및 채무부담 등으로 차질
 - 중국 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대부분 고속철도 건설과 자원수송을 위한 가스관 건설 등이며 동부와 서부 간 연결, 북부와 남부 간 연결, 동해안 연결 등으로 추진 중
 - 중국 주변의 연선국가들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의 역량 미흡으로 인하여 일부 차질(연선국가의 면밀한 Cost Benefit Analysis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
 - 파키스탄의 경우 신장웨이우얼에서 과다르항까지 연결하는 철도와 가스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채무의 증가로 과다르항 운영권을 43년간 중국에 이양하면서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
 - 스리랑카의 경우 코톤항과 함반토타항의 건설로 인한 채무증가로 역시 중국에 함반토타항의 지분 85%와 99년간의 운영권을 이양한 상태
 - 최근 말레이시아는 2018년 재집권한 마하티르 총리의 8월 중국 방문에서 동부연안 고속철과 싱가포르까지의 고속철 건설 등을 국가채무 부담을 이유로 취소했다가 사업의 지연으로 결정을 번복한 상태
 - 이러한 주변 연선국가들의 내부 재무상태와 정치적 이유 그리고 중국국유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적극성에 비해 소극적인 기술이전 및 산업화 등으로 개발일정에 차질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견제 증가
 - 미국은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식민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과 함께 견제

-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18년 5월 1일자 기사를 통하여 향후 스리랑카 함반토타항과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에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
- 주변의 관련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인도 등이 사실상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
 - IMF도 일대일로 정책을 신식민지 정책으로 언급
 - 일본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약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2018년 10월)
 - 미국에서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Corporation) 설립법안이 상원을 통과(2018년 10월)
 - 약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QUAD, 즉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 공동협약이 2018년 상반기 다시 활발하게 재논의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대체 구상로의 가능성에 주목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주시 중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는 없으며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개별 지방정부와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며, 현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BRI 프로젝트 초안을 중국정부에 보내어 중국정부가 검토 중인 상태이고 QUAD도 예의 주시¹¹⁾
 - 중국은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재조정할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속도조절 중
 - 필요에 따라 참여국가들과 일부 개발사업의 내용 및 시기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미·중 간 통상마찰이나 주변국가들과의 지역안보이슈로 전이되는 것을 경계
 -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중국 내 여론이 나빠지는 것도 인식
 - 일대일로 구상에 최근 하나의 통신을 추가하여 “One Belt, One Road, One Telecommni-cation”으로 5G 통신망 구축으로까지 일대일로의 개념 및 정책수단을 확장 중

11) Malaysia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Belt & Road Initiative 담당 국장과의 인터뷰(2018년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

-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QUAD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을 재점검할 필요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또는 QUAD의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지속가능성 모색
 - AIIB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미·중 간 갈등 장기화의 여건 아래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고민 필요